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교정치료에 따른 자존감 비교연구

–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

김 흥 식, 송 재 상, 임 병 철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A Comparativ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rthodontic Treatment

Hong-Sik Kim, Jae-Sang Song, Byung-Chul Lim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Gimcheo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orthodontic treatment with self-esteem and how orthodontic treatment has an effect on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self-esteem of each general characteristic and the difference in self-esteem according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for adult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420 university students including dental related depart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department of non-dental health in two universities located in Taegu, Gyeongbuk-do province from May 15, 2012 to May 30, 2012, and in 420 questionnaires of the investigated 420 target students, total 400(95.2%) questionnaires except for the questionnaires with falsely or erroneous responses were used for study analysis.

Results: In the rela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 with self-esteem, for self-esteem by each gender, male student showed higher, for self-esteem by residential area, the university student residing at metropolitan area showed higher, for self-esteem by financial status, high class and middle class students in home financial status showed higher, for self-esteem by face shape, the student with triangular face shape showed higher, and in the relation of self-esteem with orthodontic treatment, the university student who is getting orthodontic treatment showed higher self-esteem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onclusion: For gender, male university student, for residential area, the university student residing at metropolitan area, the high class university student in financial status, the university student with triangular face shape, and the university student who is getting orthodontic treat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self-esteem.

◉Key words : self-esteem, malocclusion, orthodontic treatment

교신저자	성명	김 흥 식	전화	010-2433-7787	E-mail	moa28kr@naver.com	
	주소	경북 김천시 대학로 214(삼락동 754)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접수일	2012. 7. 30		수정일	2012. 11. 12		확정일	2012. 12. 21

I. 서론

자존감(self-esteem)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가치 등에 대하여 스스로를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인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하였다(Coopersmith, 1967). 자존감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를 평가하는 심리개념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또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체형과 얼굴 등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한 다양한 외모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며,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자존감은 증가한다고 하였다(Kaiser, 1990).

21세기 들어 심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치의학 분야에서도 치과교정에 대한 관심과 치열교정을 받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정치료는 교합을 개선시켜줌으로써 저작기능과 발음을 개선시키고(Centofante et al, 1982), 입술 주변의 안모에도 많은 영향을 줌으로써 외적인 자신감뿐이 아니라 내적으로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좋은 교합과 안모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반대로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Lagerstrom et al, 2000; Thompson et al, 2004; 정민호, 2007). 외부로 쉽게 노출되는 부정교합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Shaw et al, 1980).

부정교합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정민호, 2007; Shaw et al, 1980) 성인이 된 후 치열교정이나 부정교합에 연관된 외모나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Lagerstrom et al, 2000; Shaw et al, 2007). 또한 이상재(2012)는 정상교합군과 교정치료군 및 교정치료진행군은 부정교합군에 비해 자존감 척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으며, 교정치료 종료군은 교정치료 진행 군에 비하여 자존감 척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정교합은 여성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원

인이 될 수 있고 치아 교정을 통해서 여성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감이 더 높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과 결혼할 확률이 높으며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며 더 행복하다고 발표하였다(Goldman & Lewis, 1997).

정민호(2007)는 상악 전치의 치아배열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입술주위의 돌출감은 자존감에 유의할만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치과교정의사들이 교정치료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합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rody et al, 2008).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치열교정을 하는 주요 동기는 치아의 기능적인 향상이나 건강을위해서라기 보다는 외모의 개선이 목표인 경우가 많다(임동혁 등, 2003; Mandall et al, 2001). 남녀에 있어서 외모가 자신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작용하며, 남녀모두 신체적으로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Adams et al, 1988).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차이와 부정교합과 교정치료 유무에 따른 자존감차이를 조사 분석해봄으로써 교정치료와 자존감과의 연관성과 교정치료가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2012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치과관련학과 대학생, 보건계열학과 대학생 및 비치과보건계열학과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선정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조사원을 선정하여 설문문항 설명을 통한 사전교육으로 조사원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사된 연구대상자의 설문지 420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400(95.2%)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측정도구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5문항, 연구 대상자의 치열상태에 관한 3문항, 치열교정에 관한 3문항, 자존감지수(Self-esteem Index, SI) 평가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존감지수는 평균 최저 1에서 5사이의 값을 가지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높은 자존감지수(SI)값을 나타낸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치열상태, 연구대상자의 치열교정경험, 연구대상자의 자존감지수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3. 자료 분석

각 요인별에서의 자존감척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성검정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Win versio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400명 중 여성이 253명(63.3%)으로 남자는 147명(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대도시가 175명(43.85%)으로 중소도시 162명(40.5%), 농어촌 63명(15.8%)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력 정도는 중류층이 330명(82.5%)으로 하류층 39명(9.8%), 상류층 31명(7.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전공학과는 치과관련학과가 178명(44.5%)으로 보건계열학과 145명(36.3%), 비치과보건계열학과 77명(19.3%)보다 많게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얼굴 형태로는 원형이 292명(73.0%)으로 삼각형 68명(17%), 사각형 40명(10%)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percentage(%)
sex	male	147	36.8
	female	253	63.3
total		400	100
residence	big city	175	43.8
	small and medium cities	162	40.5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63	15.8
total		400	100
economic power	upper class	31	7.8
	middle class	330	82.5
	lower class	39	9.8
total		400	100
department	dental related departments	178	44.5
	department of health	145	36.3
	department non-dental health	77	19.3
total		400	100
face shapes	triangular face	68	17.0
	circular face	292	73.0
	square face	40	10.0
total		400	100

2. 연구대상자의 치열상태

자신이 생각하는 치열상태로는 '중첩이 아니다' 가 260명(66.0)으로 '약한 중첩이다' 122명(30.55), '심한 중첩이다' 18명(4.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돌출이 아니다' 가 255명(63.8%)로 '약한 돌출이다' 137명(34.3%), '심

한 돌출이다' 8명(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치아 위치가 '정상이다' 가 272명(68.0%)으로 '2급 부정교합이다' 69명(17.3%), '3급 부정교합이다' 59명(14.8%)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ntal condition of study subjects

ch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percentage(%)
crowding	normal	260	66.0
	slight crowding	122	30.5
	severe crowding	18	4.5
total		400	400
protrusion	normal	255	63.8
	slight protrusion	137	34.3
	severe protrusion	8	2.0
total		400	100
tooth position	class I	272	68.0
	class II	69	17.3
	class III	59	14.8
total		400	100

3. 연구대상자의 교정치료

교정치료 경험이 없다가 283명(70.8%)으로 과거에 했다 71명(18.0%), 현재 하고 있다 45명(1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정치료 경험자 중 교정치료를 받은 시기로는 대학교가 37명(9.3%)으로 고등학교 32명(8.0%), 초등

학교 30명(7.5%), 중학교 18명(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정치료 기간 중 사용한 교정장치로는 고정식 교정장치가 75명(18.8%)으로 고정식 교정장치와 가철식 교정장치 31명(7.8%), 가철식 교정장치 11명(2.8%)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Orthodontic treatment of study subjects

ch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percentage(%)
orthodontic treatment	did not	283	70.8
	past has	72	18.0
	current is	45	11.3
total		400	100
when orthodontic treatment	elementary school	30	7.5
	middle school	18	4.5
	high school	32	8.0
	university	37	9.3
total		117	29.3
kind of orthodontic appliances	fixed orthodontic appliances	75	18.8
	removable orthodontic appliances	11	2.8
	fixed and removable orthodontic appliances	31	7.8
total		117	29.3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존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은 성별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1$). 거주지별로는 대도시거주자가 농어촌거주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을 나타냈으며, 대도시거주자와 중소도시거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가정의경제력 면에서는 상류층이나 중류층인 대학생이 하류층인 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을 나타냈으며, 상류층과 중류층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05$). 전공학과별 자존감은 치과관련학과, 보건계열학과, 비치과보건계열학과 등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또한 얼굴 형태에 따른 자존감은 얼굴이 삼각형인 대학생이 원형이나 사각형인 대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p < 0.05$)(Table 4).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 and self-esteem index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mean±SD	p-value
sex	male	147	4.10±0.81	0.000*
	female	253	3.77±0.86	
total		400	3.89±0.85	
residence	big city	175	4.01±0.75 ^b	0.041*
	small and medium cities	162	3.81±0.92 ^{ab}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63	3.77±0.92 ^a	
total		400	3.89±0.85	
economic power	upper class	31	4.21±0.95 ^b	0.001*
	middle class	330	3.91±0.81 ^a	
	lower class	39	3.46±1.02 ^a	
total		400	3.89±0.85	
department	dental related department	178	3.90±0.85	0.163
	department of health	145	3.80±0.89	
	department of non-dental health	77	4.03±0.76	
total		400	3.89±0.85	
face shapes	triangular face	68	4.15±0.88 ^b	0.017*
	circular face	292	3.85±0.83 ^a	
	square face	40	3.75±0.90 ^a	
total		400	3.89±0.85	

*: p-value by t-test or one-way ANOVA test
 ab: same lett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test

5. 연구대상자의 치열상태와 자존감

치열상태와 자존감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치열이 ‘중첩이 아니다’와 ‘약간 중첩이다’ ‘심하게 중첩이다’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존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p > 0.05$), ‘전돌이 아니다’와 ‘약간 전돌이다’ ‘심하게 전

돌이다’와의 자존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또한 치열이 ‘정상이다’와 ‘2급 부정교합이다’ ‘3급 부정교합이다’와의 자존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Table 5).

Table 5. Dental condition and self-esteem index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mean±SD	p-value
crowding	normal	260	3.86±0.87	0.580
	slight crowding	122	3.94±0.84	
	severe crowding	18	4.02±0.70	
total			3.89±0.85	
protrusion	normal	255	3.92±0.87	0.700
	slight protrusion	137	3.85±0.82	
	severe protrusion	8	3.75±0.75	
total		400	3.89±0.85	
tooth position	normal	272	3.91±0.87	0.338
	class II	69	3.76±0.83	
	class III	59	3.96±0.81	
total		400	3.89±0.85	

*: p-value by one-way ANOVA test

6. 연구대상자의 교정치료와 자존감

현재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군이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을 나타냈으며($p < 0.05$),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군은 과거에 교정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보다도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 0.05$). 교정치료를 받은 시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정치료시기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존감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p > 0.05$), 교정치료 기간 중 사용한 교정장치의 종류에 따른 자존감 또한 고정식 교정장치, 가철식 교정장치, 고정식과 가철식 교정장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Table 6).

Table 6. Orthodontic treatment and self-esteem index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mean±SD	p-value
orthodontic treatment	did not	284	3.82±0.87 ^a	0.037*
	past has	71	4.03±0.86 ^{ab}	
	current is	45	4.11±0.65 ^b	
total		400	3.90±0.85	
when orthodontic treatment	elementary School	30	4.25±0.72	0.193
	middle School	18	3.89±0.81	
	high school	32	3.86±0.97	
	university	37	4.10±0.60	
total		117	4.04±0.78	
kind of orthodontic appliances	fixed orthodontic appliances	75	3.97±0.78	0.339
	removable orthodontic appliances	11	4.31±0.71	
	fixed and removable orthodontic appliances	31	4.12±0.81	
total		117	4.04±0.78	

*: p-value by one-way ANOVA test

ab: same lett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 test

7. 연구대상자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위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모형의 결정계수는 0.110로 나타났으며, 자존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경제력, 얼굴형태, 교정치료 등으로 나타났다($p < 0.05$)(Table 7).

Table 7. Factor affecting on self-esteem of study subjects

chracteristics	B	SE	β	t	P
sex	-.346	.087	-.195	-3.978	.000
residence	-.103	.058	-.086	-1.765	.078
economic power	-.338	.099	-.166	-3.427	.001
department	.057	.056	.051	1.033	.302
face shapes	-.199	.079	-.120	-2.503	.013
tooth position	-.017	.056	-.015	-.315	.753
orthodontic treatment	.152	.061	.122	2.496	.013
constant	5.409	.319		16.935	.000

$R^2 = 0.110$ adjusted $R^2 = 0.094$ $p = 0.000$

IV. 고 찰

본 연구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치과관련학과, 보건계열학과 및 비치과보건계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부정교합과 교정치료가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존감에서는 성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발표한 임소연(2001)의 연구와 일치 하였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자존감이 높다고 발표한 이승희(2009)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거주지 별로는 대도시거주 대학생이 농어촌거주 대학생보다 높은 자존감지수를 나타냈으며, 자신 가정의 경제력이 상류층이나 중류층인 대학생이 하류층인 대학생보다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어, 가족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발표한 이승희(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얼굴형태가 삼각형인 대학생이 원형이나 사각형인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

치열상태와 자존감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치열이 '중첩이 아니다'와 '약간 중첩이다' '심하게 중첩이다'와의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전돌이 아니다'와 '약간 전돌이다' '심하게 전돌이다'와의 자존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치열이 '정상이다'와 '2급 부정교합이다' '3급 부정교합이다'와의 자존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성인여자 대학생들 중 상악 전치부에 4mm이상의 밀생을 보이는 밀생군, 상하순의 돌출도가 E-line에 대하여 총 4mm이상인 돌출군은 밀생과 돌출을 보이지 않는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자존감 지수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밀생군과 돌출군 간에는 서로 유의한 자존감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한 정민호(2008)의 연구와 전치부 치아배열과 돌출감이 성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Helm 등(1985)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교정치료와 자존감과의 관계에서는 현재 교정치료중인 대학생이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발표한 이승희(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교정치료를 받은 80% 이상의 사람들 중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80%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Jacobson(198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교정치료를 받아 부정교합의 정도가 개선되

어도 자존감이나 우울감 등의 심리상태는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군과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표한 Shaw 등(2007)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교정치료 경험자중 교정치료시기에 따른 자존감 차이와 교정치료에 사용한 교정장치의 종류에 따른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승희(2009)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정도, 가족의 월수입,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교정치료 후 대인관계가 좋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가정의경제력, 얼굴형태, 교정치료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외모에 덜 민감하고 영향을 덜 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여자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자본주의 특성상 가정의 경제력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은 자존감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며, 교정치료를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사고가 높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대구, 경북의 일부지역 대학교로 한정하였기에 이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표본지역의 다양화와 표본수의 증가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서 여러 대학생들을 비교하는 횡단적 설계의 연구를 함으로써 횡단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 요인에 따른 자존감 지수 변화의 인과성을 직접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정치료 전, 후의 자존감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여 교정치료가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종단적 설계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V. 결 론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교정치료에 따른 자존감 차이를 조사하여 부정교합과 교정치료가 대학생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구, 경북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교의 치과관련학과, 보건의료관련학과, 비치과보건의계열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설문지를 연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며, 가정경제력이 상류층이나 중류층인 남자대학생이 비교적 자존감이 높았으며, 삼각형의 얼굴 형태를 가진 대학생이 다른 얼굴 형태를 가진 대학생들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치열상태와 자존감과의 관계에서는 중첩, 전돌, 치아위치관계 등 모든 군에서 서로 유의한 자존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교정치료와 자존감과의 관계에서는 현재 교정치료중인 대학생이 교정치료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정치료 경험자중 교정치료시기에 따른 자존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교정치료 중에 사용한 교정장치의 종류에 따른 자존감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대학생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가정의 경제력, 얼굴형태, 교정치료 등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Adams GR, Hicken M, Salehi, M. Socialization of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parental expectations and verb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3, 137-149, 1988.

- Baik HS, Kim KH, Park Y. The distributions and trends in malocclusion patients – A 10 year study of 2155 patients from YDSH. *Korean J Orthod*, 25(1), 87–100, 1995.
- Brody GH, Kogan SM, Murry VM, Chen YF, Brown AC. Psychological functioning, support for self-management, and glycemic control among rural african adults with diabetes mellitus type 2. *Health Psychol*, 27(1), 83–90, 2008.
- Centofante DM, Brittin ME, Williams BH. Anterior malocclusion and soft tissue profile related to sound production and self-concept. *Angle orthod*, 52, 313–324, 1982.
-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3–47, 1967.
- Goldman W, Lewis P. Beautifulis good: Evidence that the physically attractive are more socially skillfu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25–130, 1977.
- Helm S, Kreiborg S, Solow B. Psychosocial implication of malocclusion: a 15-year follow-up study in 30-year-old Danes. *Am J Orthod*, 87, 110–118, 1985.
- Jacobson A. Psychological aspects of dentofacial esthetics and orthognathic surgery. *Angle Orthod*, 54, 18–35, 1984.
- Jung MH, Baek SH, Heo W. Effects of malocclusion on the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Orthod*, 38(6), 388–396, 2008.
- Jung MH. Effects of malocclusion and orthodontic treat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Korean J Orthod*, 37(1), 56–64, 2007.
-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ew York. Macmillan, 2, 174, 1990.
- Kerosuo H, AL Enezi S, Kerosuo E, Abdulkarim E. Association between normative and self-perceived orthodontic treatment need among Arab high school student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25, 373–378, 2004.
- Lagerstrom L, Stenvik A, Espeland L, Hallgren A. Outcome of a scheme for orthodontic care; a comparison of untreated and treated 19-year-olds. *swed Dent j*, 24, 49–57, 2000.
- Lee SH. A Study in Self-Esreem of Orthodontic Patients in Daegu.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31(4), 305–317, 2009.
- Lee SJ. A study on the effects of malocclusion or orthodontic treatment on self-esteem in femail adults. Dep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2012.
- Lm DH, Kim TW, Nahm DS, Chang YI. Current trends in orthodontic patien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Korean J Orthod*, 33(1), 63–72, 2003.
- Mandall NA, Wright J, Conboy FM, O'Brien KD.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orthodontic treatment need and measures of consumer perception. *Community Dent Health*. 18, 3–6, 2001.
- Shaw WC, Meek SC, Jones DS. Nicknames teasing, harassment and the salience of dental features among school children. *Br J Orthod*, 7, 75–80, 1980.
- Shaw WC, Richmond S, Kenealy PM Kingdon A, Worthington H. A 20-year cohort study of health gain from orthodontic treatment: psychological outcome.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32, 146–157, 2007.
- Thom pson LA, Malmberg J, Goodell N, Boring RL. The distribution of attention across a talker's face. *Discourse Process*. 38, 145–168, 2004.
- Tulloch JF, Shaw WC, Underhill C, Smith A, Jones

G, Jones M. A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orthodontic treatment in British and American communities. *Am J Orthod.* 85, 253-259, 1984.

Yim SY. The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The Patient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and General Person. Dep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1.